

- 주요 뉴스: 연준 의장이 제시한 인플레이션 위험 판단 기준, 점차 이상 신호를 발신
 - IMF(국제금융협회), 3/4분기 선진국 부채는 전기비 소폭 감소, 신흥국은 사상 최대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국채 시장은 향후 충격을 대비하여 당국의 지원이 필요
 - ECB 금융안정보고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경고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및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3%], 달러화 하락[-0.2%],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매도 증가로 연결
유로 Stoxx600 지수는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차익 매물 출회 등이 반영
유로화가는 약보합, 엔화는 0.7%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월 주택착공 부진 등이 원인
독일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소폭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81.3원, -2.3원) 0.2% 하락, 한국 CDS 보합

		11/17일	11/16일	전일대비			11/17일	11/1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88.7	4,700.9	-0.26%	국채 금리 10y	미국	1.59%	1.63%	-4bp
	유럽	489.95	489.27	0.14%		독일	-0.25%	-0.24%	-1bp
	중국	3,537.4	3,521.8	0.44%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688	29,808	-0.40%		중국	52bp	52bp	0bp
	한국	2,962.4	2,997.2	-1.16%	위험 지표	EMBI+	-	371	-
환율	달러지수	95.77	95.92	-0.15%		VIX	17.11	16.37	4.52%
	유로화	1.1319	1.1320	-0.01%		WTI유	78.36	80.76	-2.97%
	엔화	114.08	114.82	0.65%	원자재	구리	419.3	435.2	-3.64%
	위안화	6.3780	6.3928	0.23%		금	1,867.5	1,850.6	0.91%
	원화	1,182.5	1,179.9	-0.2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의장이 제시한 인플레이션 위험 판단 기준, 점차 이상 신호를 발신

-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①특정 부문에 국한된 물가상승 ②급등했던 일부 제품가격의 하락 ③제한적인 임금상승 ④낮은 수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⑤구조적 물가하락 요인(세계화, 기술발전) 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크지 않다고 언급
- 하지만 최근에는 파월 의장의 진단과 다른 상황이 전개. 그 동안 물가상승이 공급 병목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분야에 한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확산. 급등했던 제품의 가격은 다소 하락했지만, 정상화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또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상당한 수준의 임금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가파르게 상승. 아울러 정치적 갈등 및 공급 차질 등으로 구조적 물가하락 요인의 효과도 이전보다 약화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IF(국제금융협회), 3/4분기 선진국 부채는 전기비 소폭 감소. 신흥국은 사상 최대

- 해당 기간 선진국 부채는 203조달러로 전기비 1조달러 감소. 반면 신흥국은 93조달러로 사상 최고치. 전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60%로 전기비 10%p 하락했는데,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GDP 증가 등에 기인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국채 시장은 향후 충격을 대비하여 당국의 지원이 필요

- 윌리엄스 총재는 작년에도 코로나 19의 발병으로 국채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 비록 그러한 사건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나, 당국은 이를 대비하고 국채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연준의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한 결제 수단임을 보증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나 은행산업에 적용되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 미국 10월 주택착공건수, 전월비 감소, 공급 병목과 노동력 부족 등이 원인

- 같은 달 주택착공건수(152만건, 연환산)는 전월(156만건) 및 예상치(158만건)를 모두 하회. FWD BOND'S의 Christopher Rubkey는 주택건설 활동이 여전히 부진하며 토지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문제라고 지적

■ 미국 의회 산하 기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할 필요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의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 또한 현재 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2018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던 시기와 비슷할 정도로 심하다는 의견을 피력

■ 골드만 삭스 CEO, 최근 금융시장은 두려움보다 탐욕이 많은 상태

- 데이빗 솔로몬 CEO는 탐욕이 두려움보다 많은 시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지적.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특정 자산은 투자성과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첨언

■ ECB 금융안정보고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경고

- 높은 수준의 신용, 자산 가격, 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과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 주식과 여타 위험자산 역시 최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히려 이에 따른 조정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

■ ECB 부총재,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경계할 필요

- 데 쿼도스 부총재는 물가 관련 충격이 장기화되면 임금상승 등 구조적 물가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 슈나벨 이사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조기 통화긴축이라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

■ 영국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4.2% 올라 10년 만에 최고 수준

- 통계국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요인.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하지만 영란은행의 캐서린 만 위원은 가계, 기업, 시장에서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의 2%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1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건설허가건수(만건): 165, 9월(159), 예상치(164)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수정치): 4.1%, 9월(3.4%), 속보치(4.1%)

■ 주요 경제 이벤트(11/1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 ECB 레인 이사 강연
- 미국 11/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 - 블룸버그

(The Fed Has More Options Than 0% Rates or Recession)

-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로 연준의 대응에 관심이 고조. 일각에서는 긴축 속도를 높이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소비자물가를 고려한 실질 연방기금금리와 실질 국채금리는 모두 사상 최저 수준
- 이는 연준이 제시한 중립금리(2.5%)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몇 차례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블라드 총재도 채권매입 축소 속도를 높여 테이퍼링을 3월에 종료하고, 금리인상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연준은 완만하게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등의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긴축 움직임이 적합한 상황

■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다국적 기업에 기회이나 위험요소도 상존 - Financial Times

(Western brands aim for the sky in Xi Jinping's China)

-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부유는 중국 내 중산층 확대를 다국적 기업에게는 잠재고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에 따라 소비재 기업 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 기업들도 이를 향유하기 위해 중국 시장 확장을 지속
- 다국적 기업은 당분간 중국 시장에서 수혜를 받겠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규제 등은 복잡한 상황.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문제와 관련하여 이익 창출과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

■ 미국 채권시장, 연준의 긴축과 대규모 정부 차입으로 수급이 악화될 소지 - WSJ

(How the Fed Rigs the Bond Market)

■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지속적 대화가 요구 - Financial Times

(Easing US-China tensions requires more dialogue)

■ 미국 달러화, 고물가 등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에 추가 강세 가능성 - 블룸버그

(Still the King, the U.S. Dollar Throws Shade at Currency Weakling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